

### 리얼리티 수행일기 <上>



조주호

화가, 광주대 겸임 교수

내가 참선을 처음 접하게 된 인연은 조금 별나다. 그때가 대학시절을 거의 마칠 즈음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현대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림을 그리며 대학시절을 마무리하는 시절이었다. 그 시절 삼촌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 대학시절 무질서한 생활속서 참선 시작

#### 항상 알 수 없는 인연 존재함을 깨달아

데 조카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으니, 한번 같이 가보겠느냐"고 하셨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 가지 싫습니다" 고 했다. 삼촌은 조카의 생활이 조금 불안해 보이셔서 그러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 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림을 그리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젊은이 특유의 자유분방하고도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크게 삶의 고민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삼촌은 여러 번 참선을 권하셨다. 그래서 나는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내가 찾았던 곳은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 주셨는데 눈에서 파란 광채가 나왔다. 아마 현관이 어두워서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명

이 방식 위에 몇 줄로 앉아서 침묵하며 정좌하고 있었다.

그러한 광경을 대한 순간 이상한 기운이 나를 휩쌌다. 나도 그 뒤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흉내냈다. 얼마가 지나자 다리도 아프고 몸도 떨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서 옆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내 차례가 되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큰 긴장감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다 시피 하며 무릎 꿇고 그 분 앞에 앉았다. 그 분이 문기를 무엇 하는 사람이냐? 무얼 하러 왔느냐? 등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정신없이 대답하고 물러 나왔다.

그 경험이 나에게 인연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토요일 마다 그곳에 갔는데, 그 뒤로 무자(無字)란 화두를 받고 정진하기 시작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서을 종로에 있는 시린

선방에서도 지도하고 계셨는데, 어디든 선생님이 계시는 곳은 @가 다였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다. 일년이 넘어서 '무자'를 겨우 통과하고 '찰족'이라고 하는 화두를 열두 개 끝냈을 때, 그분은 법성(法性)이라는 법호를 내려 주셨다. 그 후 <무문관(無門關) 48칙을 겨우 마치고 삼독하였다.

이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다. 자주 생전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분이 바로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 노사님이다. 임제종 묘심사와 경성별원에서 15년 동안 수행하신 후 귀국해 돌아 가시는 그날까지 속가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선에 관계된 많은 책을 집필하셨다. 단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돌아가신 며칠 전날까지 제자를 지도하시던 분, 그분은 정규(淸規)에 의한 전문선방을 만들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심을 안타까워 하셨다. (계속)

# “염불선, 기록한 성자되는 淨業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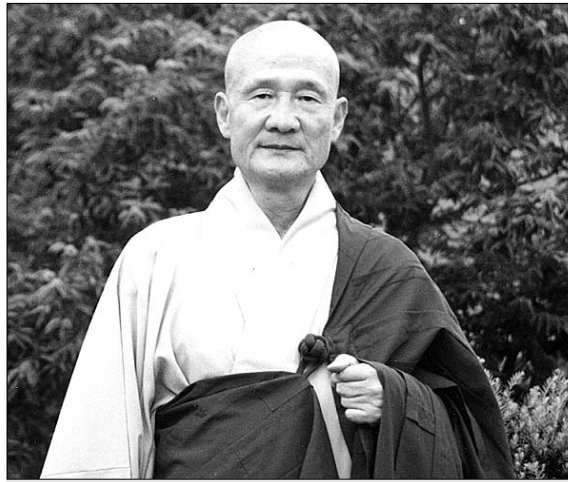
“견성(見性)은 부처되는 공부의 시작일 뿐입니다. 견성한 이라도 보임과정에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불·보살과 불법을 모독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동산반야회 법주인 무진장 스님과 함께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로서 활동하다 돌연 자취를 감춘 뒤, 20여년간 수행에만 매진해 온 춘천 현지사(033-243-1787) 회주 만현(滿顯) 스님. 3년전부터 간간히 불교방송을 통해서만 설법하던 만현 스님의 법문이 본지 435호 '지상 백고화'에 소개되자 많은 불·재가 수행자들의 문의전화가 쇠들었다. 방송 설법이 나갈 때마다 보였던 이러한 반응은 '견성 즉 성불(見性即成佛)'이라고 하는 선종의 불문율에 대해 과감히 다른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현 스님의 성불(成佛)에 대한 견해는 독특하다. 수행자가 남·북방의 다양한 수행법으로 깨달아도 이러한과(果) 이상은 증득하지 못한다고 한다. 진정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 지위에 이어 불신(佛身)과 하나되는 더욱 더 어려운 공부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10월 11일 현지사에서 스님을 뵈고 염불선의 이모저모를 여쭙보았다.

- '견성(見性)은 공부의 시작'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선종의 '견성 즉 성불'이란 주장과 상이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나는 견성은 부처 이루는 공부의 시작이라고 확언합니다. 경계가 확 뒤집혀 일시에 진여자성이 들어났다(필요조건) 해서 억겁다생애 지은 업장이 녹는 게 아닙니다. 천만생을 내려오면서 익힌 악습, 악기가 하루 아침에 멸진되지 않습니다. 탐진치 3독의 뿌리도, 착심(著心)도 그렇습니다. 다생의 악연 역시, 이를 단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즉 진여본성이 잠깐 드러났다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계(佛界) 즉, 무아 속 절대세계에 금강불괴의 자기 불신(佛身),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자기 부타를 얻어야 불(佛)입니다. 이게 총본조건입니다. 이 일엔 삼천대천 제불제존의 큰 위신력이 아니고는 불가능입니다."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학상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 <중경론>에 '서천의 28대 조사중 1인도 견성하지 않은 분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마땅, 홍수보살이 이미 견성했는데, 왜 서방정토에 왕생하고자 염불정업(念佛淨業)을 닦았겠습니까? 견성이 곧 불(佛)이라 하면, 불은 가는 곳이 달리 있습니다. 서방극락이 아닙니다. 서방극락은 보살(보살 8대 이상)이 가는 곳입니다. 영명연수 선사가 간절히 왕생을 발원하고 염불수행을



만현스님

#### 춘천 현지사 회주 만현스님의 염불선

#### '견성 즉 성불'에 대해 다른 견해 스님들 계율 철저히 지킬것 강조 삼매후 佛身과 하나되는 공부 남아

결했듯이 우리나라의 서산, 기화 선사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의 불교역사상 걸출한 대존자들인 인도의 무차, 세친보살을 위시해 중국의 혜일, 선도, 청량, 천태 스님과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 등 큰스님들도 왕생극락을 발원했습니다.

- 성불하기 위해서는 염불선 공부 꼭 필요하다는 뜻이요?

"참선을 통해 견성한 후 보임(保任)을 잘 못하면 이러한(塵)이 되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조상 이러한 이상은 오를 수 없습니다. 반면, 염불선은 중생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자가 되는 훌륭한 정업(淨業) 수행입니다. 따라서 염불삼매에 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부중에 부처님의 청정하고 영롱한 무량광을 보아야 서방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천만회 화신을 낼 수 있는 성자중 성자입니다. 무아속 삼매, 해인삼매, 대적정삼매에 자재한 부처라야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거나, 지옥 중생을 건질 수 있습니다."

- 염불선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화선은 중·하근기 수행자에게는 어려운만큼, 일심불란(一心不亂)한 염불을 통해 드디어 삼매에 드는 염불선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행법을 말한다면 먼저 정좌한 눈높이에서 1~2m 앞에 작은 점을 찍어 둔 다음, 두 눈을 뜬 채 시선을 점에 고정합니다. 가능한 눈을 깜빡 거리지 않은 채 5~10분 정도는 가능 염불하되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지장보살, 문수보살 등 자신과 인연있는 불·보살을 청명하면 됩니다. 이때 시간이 지날 수록 일심불란의 상태가 무너져 마음이 도망가기 쉬운데, 눈앞에 염불하는 불·보살이 깨서다고 관상(觀像)염불을 하면서 마음 속으로 귀, 참회, 법원의 염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번뇌망상이 자연히 사라져 마침내 염불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염불선을 통해 염불삼매를 얻은 후에도 보살 8지 이상의 지위에 이른 다음, 부처님의 무량광을 보고 불신(佛身)과 하나되는 더욱 더 어려운 공부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요즘 스님들은 지옥과 극락, 불, 보살 등을 인간 내면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생들은 있다. 없음을 분별합니다. 부다는 허공에도 별나라에도 없습니다. 마음 속에도, 마음 밖에도 아니 계십니다. 무아 속 절대세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하늘의 태양이 저렇듯 존재하면서 만물을 비추고 있듯, 부처님 또한 빛으로 계시면서 삼천대천 세계를 감싸고 계십니다. 부처께서 사바세계에 현신할 때는 32상 80중호를 보십니다. 부처님 내에 든 성자가 아니고는 그 본신의 빛의 강도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9지 선계(善善地) 보살이 빛나는 부처는 화신불입니다. 고통 떠난 마음자리가 극락이고, 번뇌망상 사멸되면 거기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 극락도 관념속 산물이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은 영체세계의 남방 지장(보살) 궁(宮) 쪽에 있습니다."

- 평상시의 염불선 공부 자세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매에 귀의하고 청정하게 부처의 계율을 지키면서 보살행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선지식의 우선 속으로 들어가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염불해야 합니다. 참회, 발원도 잊지 말고, 다라니도 염송하면 좋습니다. 팔정도에 따라 살수 있다면 금생도 내생도 복될 것입니다."

춘천=김재경 기자

#### 경기불교문화원 참선, 관법등

#### 수행프로그램 지역민에 큰 호응



김태제 이사장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이사장 김태제)이 큰스님 초청 백고화 법회를 비롯 참선, 위빠사나, 경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달 큰스님 초청 열린 법회를 열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은 10월 18일 제8회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초청 법회에 이어, 11월 15일 남곡선원장 혜국 스님 초청법회를 연다.

사찰환경단사와 불교문화(화상, 석담, 탕화, 범종 등) 교실, 한방 경락 강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을 포교하

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은 참선, 위빠사나 등 수행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다. △참선 강좌=매월 첫, 셋째 주 일요일 오후 1시, 김태원 무심선원 원장 지도 △위빠사나=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호두마을 정원 지도법사 스기초교리=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철희 경기불교문화원장 △경전강좌=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묘주 스님 △생활 요가=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최두남 선생 △태극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남윤현 선생 △불교 의식=주 월요일 오후 2, 7시 권혁찬 법사 △다도=매주 화(초급반), 목요일(중급반) 오전 10시 윤영애 선생. (031)251-1083

#### 호두마을을 11~12월 집중수행

천안 호두마을은 지도법사 혜진스님과 김열권 법사, 정원 법사의 지도로 11, 12월 주말수행과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혜진 스님이 11월 14-16일 및 12월 19-21일 주말수행을, 김열권 법사가 11월 21-26일, 12월 25-30일 집중수행을 각각 지도한다. 정원 법사는 12월 5-7일 주말수행을 맡는다. (041)567-2841

#### 마곡사 일주일 철야용맹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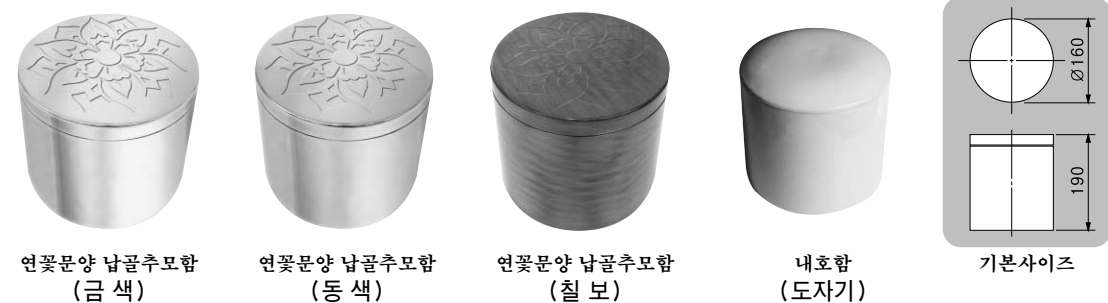
공주 마곡사주지 진개는 10월 18일, 영산전에서 서울 강남 포교원장 성열스님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철야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지난 4일부터 매주 1박2일간의 주말수련회를 열고 있는 마곡사는 첫째 주 주비명상, 셋째 주 참선, 풀·넷째 주 자유정진을 실시한다. (041)841-6221

#### 봉인사 '자비수관' 프로그램 진행

경기 남양주시 봉인사(주지 적경)는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자비수관(慈悲手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은 스님(전 송광사 강주)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4년제 중 목 관찰을 중심으로 한 관법(위빠사나)으로서 지혜 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행이다. (031)574-5585

##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기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막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회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기포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함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최정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함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또한 미려한 이 회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봉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지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 고 품질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최상의 서버 대역량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주]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